

오늘 아침 교육감님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.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.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아이와는 포옹도 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'아빠 냄새 난다'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. 초등학생의 생기발랄한 감수성이 아니라면 생각할수도 없는 장면이었습니다.

아빠가 고픈 아이 였습니다.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습니다. 엄마가 고프고 아빠가 고프는 녀석들과 함께 살고 계신 희망교실 선생님들, 오늘 아이들 한번 그냥 꼭 안아주시죠...고맙습니다

인간.과.기.억.아.카이브

Human & Memory Archives